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유바다**

〈목 차〉

머리말

I.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인식

II.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에 대한 인식

III.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에 대한 인식

맺음말

〈국문초록〉

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때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東學”을 음가로는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o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東學”으로 번역하여 보고하였다.

1894년 4월 25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는 사이에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이 “폭동(Unruhen)” 내지 “동학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란(Tonghak-Unruhen)”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은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는 개념이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크리엔은 김개남이 전라도 남원에서 開南王(Furst von Kainam)을 자칭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때 개남왕 김개남은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onig)”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8일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반란군 지도자(Rebellenfuhrer), 즉 전봉준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저 멀리 독일제국의 수도 베를린에까지 전해졌다.

주제어 : 독일제국, 동학, 폭동, 김개남, 전봉준

머리말

동학교도들은 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었다. 따라서 이미 조선과의 각종 조약 체결을 통해 서울에 들어와 있었던 각국 공사관원 및 거류민들은 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프랑스 선교사 뮈텔(Gustave-Charles-Marie Mutel) 주교가 『일기』를 남겨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남긴 자료 중 동학농민군에 대한 부분은 『東學文書』로 따로 정리되어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진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교조신원운동 당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의 구호가 수록된 『동학문서』를 활용하거나,¹⁾ 뮈텔 주교의 정국 인식을 다룬 연구²⁾ 정도가 눈에 띈다. 프랑스 외교문서는 과

1) 배항섭, 2002, 「1893년 동학교도와 大院君의 擧兵 企圖」, 『한국사학보』 12, 97~133쪽.

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하고,³⁾ 최근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에서 정리⁴⁾한 바 있으나 역시 프랑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없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당시 조선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여 핵심 당사자로 서울에 공사관을 세웠던 영국, 미국의 외교문서를 활용한 연구, 영국,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관여하고 있었던 독일, 러시아 외교문서를 활용한 연구 또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자체적으로 입수한 독일외교문서를 활용한 이영관의 연구⁵⁾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독일총영사 크리엔이 동학농민군의 정황을 탐지한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에서 『독일외교문서 한국편』⁶⁾을 펴내어 주목된다. 이 자료집을 통하여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총영사관 외교관을 중심으로 그와 문서를 주고받던 독일제국 당국자 및 외교관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6권에는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부터 1895년 4월 전봉준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군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동학농민군은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은 만큼 이들에 대하여 “洋”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적대적인 타자의 눈을 통하여 그들을 들여다볼 경우, 오히려 그동안 국내 자료에 드러나

2) 김태웅, 2011, 「조선말-대한제국기 뮌헨 주교의 政局 認識과 對政治圈 活動」, 『教會史研究』 37, 95~123쪽.

3) 국사편찬위원회, 2002~2010, 『프랑스외무부문서』 1~9.

4) 이지순 외 역, 2018, 『근대 한불 외교자료』 1~3, 선인.

5) 이영관, 2002, 『조선과 독일』, 국학자료원.

6)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2019~2021,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15, 보고서.

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에 대한 새로운 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편찬된 『독일외교문서 한국편』을 통하여 독일제국 당국자, 그 중에서도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던 독일총영사관 및 그와 관계된 외교관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871년 이후 서구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독일제국은 총리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국력을 바탕으로 1848년 혁명 이후 무너진 유럽 협조체제를 복구하고 이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였다.⁷⁾ 이러한 가운데 독일제국은 1882~1883년에 걸쳐 미국, 영국에 이어 조선과 세 번째로 조약을 체결한 국가였다. 독일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도 요구되는 시점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만큼 이제 독일제국의 국제정치적 입장도 조선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1880년대 중반 독일제국 관료들의 조선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⁸⁾에 따르면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조러밀약설에 이르기까지 독일제국 관료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만큼 독일제국이 조선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쏟아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890년 비스마르크 실각 이후 독일제국은 유럽협조체제에서 빌헬름 2세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책(Weltpolitik)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⁹⁾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1894년은 과도기에 있었던 만큼 이때 독일제국만의 독자적인 조선 정책 또는 동학농민군 대응책을 찾기는 어렵다.

7) 김용구, 2012,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 정상수, 2023, 「개항 이후 독일 관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적 상황 1884/86년」, 『西江人文論叢』, 67, 251~284쪽.

9) 정상수, 1996, 「빌헬름시대 독일의 세계정책 (Weltpolitik) 1895/97 - 1901/07」, 『西洋史論』, 51, 69~10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제국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자 러시아, 프랑스와 합세하여 이를 저지하는 삼국간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⁰⁾ 이는 기존 영국 및 프랑스가 주도하였던 제국주의 경쟁에 독일제국도 가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독일제국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독일제국은 1898년 동아시아 세계에서 膠州灣을租借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1900년 청국의 민중운동이었던 의화단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및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당연히 이들의 시야에 들어온 상태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당시 독일제국 관료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 또한 어느 정도의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I.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인식

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비교적 일찍부터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4월 18일(음력 3월 3일)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Ferdinand Krien)은 독일제국 총리 카프리비(Georg Leo Graf von Caprivi)에게 “20여 년 전에 창시된 종교인 ‘동학’이 특히 조선의 남부 지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교세를 크게 떨치고 이들이 일본인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즉시 추방할 것을 조선 정부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라도 관찰사에게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다.¹¹⁾

10) 이선희, 2022, 「독일의 삼국간섭 참여와 자오저우만(膠州灣) 조차(租借)-독일의 제국주의적 야망-」, 『역사와 세계』, 62, 175~206쪽.

1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보고서,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여기서 “동학”은 음가 그대로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ö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동학”으로 번역되어 전달되었다. 동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제출된 청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1892년 12월 20일(음력 11월 2일) 삼례집회를 포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례집회 당시 제출한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 중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今 西夷의 學과 倭醜의 毒이 다시 外鎖에 放肆하여 그 極할데가 없고 凶逆의 禍단이 임금수레 밑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生等의 切齒腐心하는 것이오¹²⁾

서양 오랑캐의 학문과 왜놈의 독이 가득하다는 언급을 미루어 볼 때 삼례집회 당시 동학교도가 斥倭斥洋을 부르짖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크리엔의 보고대로 “일본인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즉시 추방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크리엔은 동학교도들이 서양인 및 일본인에 대한 강한 배척 의식을 지닌 것은 분명히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크리엔이 언급한대로 이 청원서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관측에 따르면 바로 지난달(1894년 3월; 음력 2월) 말 동학교도 대표 50여 명이 조선 국왕에게 진정서를 올리기 위해 서울에 나타났다. 진정서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허가해줄 것을 조선 국왕에게 간청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몇 년 전 전라도 관찰사의 명령으로 부당하게 처형된 동학 교주에 대해 뒤늦게나마 유감을 표시해주고 일본인들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조선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하려 했다고 하였다.¹³⁾

대한 소문」, 41~43, 393~395쪽.

12) 李離和 解題, 1985,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驪江出版社,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 完營」, 72~73쪽.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는 대구 감영에서 1864년 처형되었으므로 앞의 관측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서는 1893년 3월(음력 2월) 동학교도들이 광화문 앞에서 올린 복합상소를 지칭하는데, 막상 당시 상소에서 “일본인들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조선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는 다분히 서울 주재 독일총영사관원들의 공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공포심 발동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 대표단이 철수한 직후 미국 선교사들이 거처하는 집의 대문에 이들 22일까지 조선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다. 그와 동시에 약 4,000명의 무장한 동학교도들이 남부지방에서 서울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서울 시내에 나돌았다. 그 결과 미국 선교사들은 동요하였다.¹⁴⁾ 실제로 4월 4일(음력 2월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에 “儒學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패륜적이며, 4월 22일(음력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무장하여 공격하겠다”는 방문이 붙었다.¹⁵⁾

이와 같은 사항은 청국 북경에 주재한 주청독일공사관에도 전달되었다. 1894년 4월 23일(음력 3월 8일) 주청독일공사 슈테른부르크(Hermann Speck von Sternburg)는 카프리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선의 위기 상황을 보고하였다.

조선 국민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그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단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 그런데도 조선의 오지에서, 특히 경찰과 군대가 거의

13)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대한 소문」, 41~43, 393~395쪽.

1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대한 소문」, 41~43, 393~395쪽.

15) 배향섭, 2002, 「1893년 동학교도와大院君의 擧兵 企圖」, 『한국사학보』 12, 110쪽.

힘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과격한 남자들 무리가 많은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소식에 의하면, 국민들을 수탈한 조선 관리들이 습격받는 일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국왕이 국가적인 반란을 두려워해 겁에 질렸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현재의 조선 왕조는 오백 년으로 수명이 다할 것이고 그 후에는 公忠道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로부터 조선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만일 동학교도들이 충분한 조직만 갖춘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파국을 막는 것은 일차적으로 청국의 의무일 것입니다.¹⁶⁾

멀리 떨어진 북경에서도 제법 정확하게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당장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 수령의 탐학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심지어 『鄭鑑錄』과 연계하여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여기에 청국이 개입할 것이라며 1년 뒤에 일어날 청일전쟁을 예견하였다.

슈테른베르크는 뒤이어 4월 28일(음력 13일) 동학교도들이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전문을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일본인들과 외국인 폭도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우리의 수도는 일본인들과 외국인들로 우글거린다. 무질서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순결과 조국애, 예의범절과 지혜, 신의와 믿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군주와 국민들 간의 사랑-모든 것이 사라졌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저주하며, 우리와 우리나라를 산산조각 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금은 전례없이 위험한 상황이다. …… 우리는 수백만 명

16)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대한 소문」, 48~50, 399~401쪽.

에 달하며, 우리 조국의 안녕을 위해 이 땅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을 몰아 낼 것을 생사를 걸고 맹세했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우국지사들이 우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¹⁷⁾

이 성명서는 「東學黨與完伯書」와 일치한다. 일치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倭洋의 적이 腹心에까지 침입하여 큰 혼란이 지극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國都를 살펴보면, 마침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삼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수치를 생각하면 어찌 차마 말을 할 수 있으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역이 모두 禽獸의 숲속이 되었고 500년 종묘사직이 장차 망하여 黍稷이 생기는 땅이 될 지경이니, 仁義禮智와 孝悌忠信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왜적이 다시 한스럽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 환란의 조짐을 품고서 그 해독을 방자하게 부려 위급함이 조석 간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으니 진실로 평안하다고 여겨서입니까? 바야흐로 오늘날 세상은 불타는 쏘나무 앞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저희들 수백만 명이 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왜양을 쓸어버려 감히 大報의 의리를 바치려고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 충효가 있는 선비와 관리를 선발하여 함께 국가를 보호하기를 도모하소서.¹⁸⁾

17)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14. 조선에서의 불안」, 56~59, 407~411쪽.

18) 『羅巖隨錄』, 「東學黨與完伯書」, “今倭洋之賊, 入於腹心、大亂極矣。試觀今日之國都、竟是夷賊之窩穴。竊惟壬辰之羞丙子之恥、寧忍說乎、寧忍忘之。今我東方三千里疆域、盡爲禽獸之藪、五百年宗社將爲黍稷之地、仁義禮智孝悌忠信、而今安在哉。況乃倭賊更有悔恨之心、包藏禍胎、方肆厥毒、危在朝夕、視若恬然、固謂之安乎。方今之世、何以異於薪火上哉。…… 生等數百萬、同心輕死、掃破倭洋、敢效大報之義。伏願閣下、同志協力、謀選有忠孝之士吏、同保國家。”;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史芸研究所, 369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392~394쪽.

보은집회 내지 삼례집회에서 내건 동학교도들의 방문이 주한독일총영사관 및 주청독일공사관을 거쳐 독일제국 총리에게까지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달된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교조신원운동 당시 동학교도들의 첩외양 구호는 멀리 독일 베를린에까지 전달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에 대한 인식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음력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기 직전인 5월 8일(음력 4월 4일)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이 독일제국 총리 카프리비에게 조선의 남서쪽 지방 전라도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알렸다.¹⁹⁾ 여기서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폭동(Unruhen)”으로 지칭되었다. 영어의 사회, 정치적인 불안(unrest)을 의미한다. “Unruhen”이 독일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연구 모델이 되는 독일농민전쟁의 예비단계로 여겨지는 개념²⁰⁾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보병과 구식 화포로 이루어진 800여 명의

19)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7.14, 20. 조선 남부지방에서의 폭동」, 130~131, 489~490쪽.

20) Gerd Schwerhoff, 2024, *Auf dem Weg zum Bauernkrieg: Unruhen und Revolten am Beginn des 16. Jahrhunderts*(Konflikte und Kultur-Historische Perspektiven), UVK, Tübingen. 이 책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농민전쟁으로 가는 길: 16세기 초의 폭동과 반란(충돌 및 문화-역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이 “농민전쟁(Bauernkrieg)”로 여겨진 만큼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폭동(Unruhen)”으로 읽은 역사적 의미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력이 며칠 전 서울에서 제물포로 출발하였다. 그 구식 화포는 李鴻章 總督이 1년 전 “동학란(Tonghak-Unruhen)”을 진압할 목적으로 조선 정부에 선물한 것이라고 하였다. 洪啓薰이 지휘하는 兩湖招討營 병력을 지칭한다.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초기부터 “동학란”으로 지칭된 점 또한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크리엔은 5월 22일(음력 4월 18일) 재차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카프 리비에게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전라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Aufständischen)이 조선 정부군 250명을 물리치고 그 지휘관을 죽였음을 삼가 각하게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부군은 그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에서 차출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현재 반란자들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도시 12개와 더불어 그 지방의 약 1/4을 점령했습니다.²¹⁾

여기서도 동학농민군은 반란군(Aufständischen)으로 지칭되었다. 그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에서 차출된 병사들로 구성된 정부군이 패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정부군은 전라감영군이고 그 전투는 바로 5월 11일(음력 4월 7일) 벌어진 황토현전투이다. 이 시점에 이미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의 1/4을 점령하기에 이른 사실도 알 수 있다. 반면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서 출동한 군대, 즉 양호초토영 병력은 전라도의 중심도시 전주 바깥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의 관리들 상당수가 가족들을 남겨둔 채 서울로 도피하였다. 전라도 북쪽에 이웃한 충청도 지방에서도 폭동(Unruhen)이 일어난 점이 관측되었다. 심지어 북서쪽의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소요가 일어난 사실도 보고되었다. 다만 수도 서울이 위치한 경기도는 아주 평온한 분위기였다.

21)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7.14, 39.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172~174, 528~530쪽.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 반란(Bewegung)은 외국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 관리들의 횡포에 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반란군(Rebellen)에 가담했으며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 아래서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서울에서는 모두들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란이 일어난 지역은 지금 모를 심을 때인데 모내기 가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이달 16일 조선 국왕은 반란군(Aufständischen)이 자진 해산해서 일터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정당한 불만을 시정하고 “탐관오리(habgierigen und verrotteten)”는 응징하고 국민들에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²²⁾

결국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조선후기 부세체제의 모순이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촉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탐관오리를 “habgierigen und verrotteten(탐욕 및 부패)”로 지칭한 점도 흥미롭다.

동학농민군은 결국 5월 31일(음력 4월 27일) 전라도의 수부인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 직후인 6월 2일(음력 4월 29일) 단 한줄의 電文을 독일제국 외무부에 발송하였다.

반란자들(Empörer)이 조선 남서쪽 지방의 중심도시를 점령하다.²³⁾

여기서 동학농민군은 “폭도(Empörer)”로 지칭되었다. 영어의 “반역자(rebel)”에 해당한다. 이들의 행위는 다시 반란(rebellion)으로 지칭할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적어도 와트 타일러의 난(Rebels led by Wat

22)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7.14, 39.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172~174, 528~530쪽.

23)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7.14, 07.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106~108, 460~462쪽.

Tyler, 1381), 세르비아 봉기(Serb rebels, 1804), 벨기에 봉기(Belgian rebels, 1830), 헤르체고비나 봉기(Herzegovinian rebellion, 1875)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의화단의 난도 “拳匪의 난(Boxer Rebellion)”으로 통용되었다. 전보에 곁들인 라쉬단(Raschdan)의 보고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정확히 반란(Rebellion)으로 지칭되었다. 그는 조선의 반란(Aufstand)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ufstand 또한 영어로 revolt, rebellion, uprising, rising을 지칭한다.

뒤 이은 문건에서도 이 소요가 확산되어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경우에는, 북쪽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독일제국 총리도 서울 주재 독일 영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선의 서울로 떠날 수 있도록 청국 해안에 주둔하는 군함 1척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이 주조선독일총영사관의 철수가 예상될 만큼 매우 커다란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6월 2일(음력 4월 29일) 크리엔은 보다 자세한 정황을 카프리비에게 보고하였다. 그 정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란군(Aufständischen)이 그저께 전라도 감영이 있는 전주를 점령하였습니다. 점령은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전임 관찰사는 이웃한 충청도 감영이 있는 공주로 피신하였습니다. 얼마 전 외아문 협판 김학진이 후임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저 남서쪽 영광 해안지역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전신망이 끊겼고, 현재 전라도 대부분 지역에 반란군(Rebellen)에 장악되었습니다.²⁴⁾

2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3. 조선 남부지방의 폭동에 관하여」, 206~209, 561~563쪽.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 전라감사 김학진의 부임 등이 거의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대부분 지역이 반란군에 장악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그만큼 등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음의 보고를 보자.

그로 인해 조선 정부는 커다란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군대라는 평을 받은 평양 주둔 병사 500명이 오늘 레밍턴총으로 무장하고 제물포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제물포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남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전보로 추가 병력 500명을 평양에서 서울로 보내라는 훈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정부군은 무능하고 비겁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왕이 청국 황제에게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²⁵⁾

이를 통해 조선 국왕 고종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은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기포하면서 내건 「茂長布告文」의 독일어 번역문 전문이 보고된 점이다. 크리엔은 반란군의 성명서(Proklamation der Aufständischen) 사본을 번역하여 제출하면서 “반란군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오만한 관리들의 폭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무기를 들었을 뿐, 그들은 왕의 충실한 신하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roklamation”라고 하였으니 말 그대로 “포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번역은 부영사 라인스도르프(Felix Reinsdorf)가 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가장 귀중한 자산은 사회적 질서이다. 사회적 질서 가운데에서도 군신관계와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임금의

25)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3. 조선 남부지방의 폭동에 관하여」, 206~209, 561~563쪽.

덕이 있고 신하가 그에 복종하면, 또한 부친이 자애롭고 자식이 효심이 지극하면 그 가장과 나라는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계속 복을 누리게 된다. ……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다. 뿌리가 뽑히면 나라는 망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관리들은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지방에 제가 살 집을 짓고 직위와 녹봉만 생각하니 어찌 나라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비록 촌부에 지나지 않지만 임금의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이 내려주신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다. 온 나라의 백성이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거듭 심사숙고한 끝에 이제 ㉠나라의 보호 및 백성의 행복을 위해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²⁶⁾

「무장포고문」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무장포고문」 본문의 해당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는 망한다. 그런데도 ㉠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고 다만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옹골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을 것을 갈아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니, 국가가 위협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 ㉠輔國安民으로써 죽고살기를 맹세하였다.²⁷⁾

26)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3. 조선 남부지방의 폭동에 관하여」, 206~209, 561~563쪽.

모두에 君臣, 父子의 人倫을 강조하면서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다치게 하는 고로 輔國安民을 위하여 기포한 동학농민군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인 輔國安民은 두 번 나오는데(㉠, ㉡) 먼저 전자는 독일어로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Erhaltung des Staates oder an das Wohl des Volkes)”(㉠)것으로 표현되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보존과 백성의 행복”을 의미한다. 뒤에서 언급되는 “나라의 보호 및 백성의 행복(Schutze des Staats und zum Wohl des Volkes)”(㉡)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독일제국 또한 동학농민군의 목표가 “보국안민”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정황이 보고되었다. 전주화약 직후인 6월 14일(음력 5월 11일) 크리엔이 카프리비에게 올린 보고를 보자.

더 나아가 그에게 조선 외아문 독판이 외국 대표들에게 전날 정부군이 전주에서 폭도들(Empörern)을 몰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보도에 따르면 반란군들(Aufständischen)은 이미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고부군수는 넓적다리에 30대의 곤장을 맞고, 멀리 떨어진 어느 황량한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전 전라도 관찰사 김문현의 경우, 감찰관은 먼저 그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의정부를 통해 왕에게 “공공 여론을 만족시키고 군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그의 죄를 물어 처형하라는 상신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왕은 이를 거절하고 김문현을 전라도에 있는 거제도도로 귀양보냈습니다.²⁸⁾

27) 『隨錄』, 「茂長縣臚上東學人布告文」, “人之於世最貴者, 以其人倫也。君臣父子, 人倫之大者。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乃成家國, 能逮無彊之福。…… 民爲國本, 本削則國殘。不念輔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謀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可理哉。吾徒雖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國家之危亡。八路同心, 億兆詢議, 以輔國安民爲死生之誓。”;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7~158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3~4쪽.

28)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부군수 조병갑, 전라감사 김문현의 유배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인 1894년 6월 23일(음력 5월 20일)에도 베를린 외무부에 반란(Rebellion)의 정황이 보고되었다.²⁹⁾ 물론 서울 주재 독일제국 영사가 전보로 알려진 바와 같이, 반란(Rebellion)이 진압되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는데도 일본군이 서울의 외국인 거주지를 점령하였다. 물론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것은 아니다. 전주성에서 물러나 제1차 봉기를 마무리지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함께 조선에서의 청국군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었다.

독일 외무부 관원이었던 키털렌(Alfred von Kiderlen-Waechter)에게 들어간 보고에서도 “조선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폭동(Aufruhrs) 때문에 질서회복을 명분으로 청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었고,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가 유사한 폭동(Aufstände)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개혁조치들을 도입하기 전에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 두 열강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게 되었으며, 현재는 일본이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반면 청국은 수도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정황이 보고되었다.³⁰⁾ 이러한 가운데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8.12, 34. 조선 남부의 반란, 청국의 지원 병력 도착, 일본 군대 서울 진입], 270~272, 626~629쪽.

29)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7.14, 21. 일본군 제물포 각국조계지에서 철수」, 132~134, 491~493쪽.

3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1. 조선」, 201~203, 557~559쪽.

Ⅲ.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에 대한 인식

1894년 10월(음력 9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이러한 정황은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도 파악하고 있었다. 크리엔은 10월 27일(음력 9월 29일) 독일제국 총리 카프리비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삼남지방 외에 강원도와 황해도의 같은 여러 지방에서 반란자(Rebellen)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이들이 주요 거점 도시를 다시 점령했고, 나름의 정부(Regierung)를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정부군과 200여 명의 일본군이 이곳에서 파병된 후, 반란군들은 경기도에서 퇴각했습니다. 경상도의 주요 도시인 대구에서는 27명의 일본군이 경비대로 파견되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6,000여 명의 동학 반란군(Tonghak-Rebellen)을 진압하고, 2,000여 명의 화승총을 노획했습니다.³¹⁾

위의 보고에 따르면 강원도 및 황해도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나름의 정부(Regierung)를 수립한 것이 눈에 띈다. 동학농민군의 탄탄한 지배력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竹山府使 이두황이 순무영 예하의 壯衛營 領官으로 임명되어 竹山·安城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좌선봉으로는 安城郡守이자 經理廳 領官 成夏泳이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남진하는 정황이 파악되었다. 보고에서 언급한 1,000여 명의 정부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200여 명의 일본군은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의 지휘 하의 병력을 가리킨다. 대구에서의 전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동학

3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보고서,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8.26~1894.12.31, 24. 조선의 개혁 및 동학농민군 진압에 관한 건」, 93, 477쪽.

반란군(Tonghak-Rebellen)으로 지칭한 점이 주목된다.

크리엔의 보고는 11월 30일(음력 11월 4일)에도 이어졌다.

반란(Aufruhr)은 최근에 다시 확산되어 황해도까지 번졌습니다. 황해도 도청소재지 해주가 반란군에게 점령되었으며, 해주 판관이 반란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대립왕(GegenKönig)까지 등장하여 스스로를 開南(개척된 남부지방, dem erschlossenen Süden)의 王(Fürst von Kainam)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비단옷을 입었으며, 비단으로 만든 붉은 파라솔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조선의 상황은 수년 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³²⁾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해주 점령은 유명한 일이다. 이때 팔봉집주 김창수(훗날의 김구)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김개남의 전라도 남원에서 開南王 자칭이 포착된 점이다. 실제로 崔鳳吉의 『歲藏年錄』에 따르면 김개남은 다음과같이 개남왕을 자칭하였다.

金琦範이란 자가 開南王이라며 僭稱하고 南原府를 분할하여 점거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두 陳勝·吳廣의 부류이니, 어찌 깊이 근심할 것이겠는가.³³⁾

여기서 開南王은 김개남 자신의 이름에 王을 덧붙인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원래 이름이 金箕範이었던 김개남이 “南朝鮮을 연다”는 뜻을 따서 “開南”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비기에 남조선왕국설이 기재된 것을 빌어와 왕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크리엔이 파악한대로 개남의 개남이 “개

32)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 10.18, 02. 조선의 정세에 관하여」, 106~109, 491~493쪽.

33) 『歲藏年錄』, 「甲午十二月」, “金琦範云者、僭稱開南王、割據南原府云。此皆勝廣之類、何足深憂。”;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263~264쪽;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381쪽.

척된 남부지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남왕을 자칭한 김개남을 두고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önig)”으로 지칭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서 대립왕이란 서구 세계에서 한번 이루어진 왕위 계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왕위에 오른 자를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 루트비히 4세(Ludwig IV)에 대항하여 1346년 11월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s VI)의 지원으로 트리어 대주교의 주도로 열린 선제후회의에서 대립왕으로 선출된 카를 4세(Karl IV)를 들 수 있다. 1347년 10월 루트비히 4세가 죽고 카를 4세는 1349년 7월 아헨에서 다시 독일왕으로 등극하였고 1355년 11월 로마에서 대관식을 통하여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됨으로써 대립왕 지위를 청산하였다.³⁴⁾ 이를 통해 보면 크리엔은 김개남을 조선 국왕 고종에 대항하여 새롭게 등극한 대립왕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크리엔은 개남왕 김개남이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비단 옷을 입었으며, 비단으로 만든 붉은 파라솔을 앞에 내세웠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남원에서 김개남의 기세가 서울에 있던 독일총영사관에도 강렬하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8일(음력 12월 2일)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후의 정황을 크리엔은 1895년 3월 12일(음력 2월 16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일본군 사령관은 이노우에에게 반란군 지도자(Rebellenführer) 전봉준(Chong Pung Shun)을 넘겼습니다. 원래는 전봉준의 부하가 그를 조선군에게 인도하였으나 조선군은 전봉준을 다시 놓아줄 우려가 있다 하여 일본

34) 김장수, 2016, 「룩셈부르크(Lucemburská) 가의 카렐 4세(Karel IV)-왕권강화를 위한 제 방안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38, 6~7쪽.

군에게 넘겨졌던 것입니다. 일본 공사는 전봉준을 조선 당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영사관 번역관의 보고에 의하면 반란군 지도자(Rebellenführer)는 처형되지 않고 단지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비록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개혁(Reformen)과 조선 독립(Unabhängigkeit)이라는 축복 받을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³⁵⁾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인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주도 하에 갑오개혁(Reformen)이 진행되고 조선이 명목상의 독립(Unabhängigkeit)을 얻은 정황을 일본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본에게 기회로 작용하였음을 당시 일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고 청국의 종주권을 배제함으로써 일본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었다. 후대 연구자들 사이에 동학농민혁명의 청일전쟁 촉발 원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일본이 동학농민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크리엔은 전봉준의 정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고부군수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이노우에는,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이 반란군 지도자(Rebellenführer)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³⁶⁾

35)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7. 조선의 정세」, 126~129, 514~517쪽.

36)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7. 조선의 정세」, 126~129, 514~517쪽.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매질하여 죽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봉준공초』에서도 드러나듯이 전봉준의 기개는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최시형의 행방 및 전봉준 처형에 대한 전망이 이어졌다.

또한 일본공사는 충청도 지방에 은신하고 있는 동학의 “예언자(Prophet)”가 체포되지 않는 한 반란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란과 흉작으로 인해, 또한 거의 도적이 되어버린 조선 관군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전라도 지방이 어느 정도 평온을 회복하고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전봉준은 처형될 것이라고 합니다.³⁷⁾

최시형을 “예언자(Prophet)”로 지칭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Prophet”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선지자 내지 예언자를 일컫는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 또한 예언자다. 최시형이 이들과 같은 반열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인하여 일본이 조선에 목적을 이루었고, 전봉준이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전봉준이 처형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봉준이 일본을 대상으로 봉기한 점에서 일본으로서도 그를 살려 두기는 어려웠다.

크리엔은 1895년 4월 29일(음력 4월 5일) 전봉준의 처형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반란군 수괴(Rebellenführer) 전봉준(Chong-Pung-Shun)과 그의 동지 2명이 얼마 전 교수형(Erhängen)으로 처형(hingerichtet)되었습니다.³⁸⁾

37)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7. 조선의 경제」, 126~129, 514~517쪽.

주지하듯이 전봉준은 1895년 4월 24일(음력 3월 30일)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도입된 새로운 사법 체제 하에서 최초로 교수형을 당했다. 이로써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의 시각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은 모두 종결되었다.

맺음말

동학교도들이 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洋”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적대적인 타자의 눈을 통하여 그들을 들여다볼 경우, 오히려 그동안 국내 자료에 드러나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에 대한 새로운 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독일총영사관에 있었던 외교관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최근 정리된 『독일외교문서 한국편』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 자료는 한국을 중심으로 정리된 외교문서이기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망해야 할 삼국간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보다는 청국, 일본, 러시아 관련 외교문서를 통하여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독일 외교부 산하 정치문서보관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Berlin)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삼국간섭에 이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은 되도록

38)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13. 대원군 손자의 체포, 조선 주둔 일본군, 일본에서의 조선 청년들의 교육, 반란군 지도자들의 처형」, 144~146, 531~532쪽.

록 피하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에 집중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때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동학”을 음가 그대로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ö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동학”으로 번역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청독일공사 슈테른베르크는 당장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 수령의 탐학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동학교도들이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東學黨與完伯書」 전문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음력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는 사이에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이 “폭동(Unruhen)” 내지 “동학란(Tonghak-Unruhen)”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은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는 개념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엔은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조선후기 부세체제의 모순이 심화된 가운데 “탐관오리(habgierigen und verrotteten, 탐욕 및 부패)”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촉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 동학농민군은 “폭도(Empörer)”로 지칭되었다. 영어의 “반역자(rebel)”에 해당한다. 이들의 행위는 다시 반란(rebellion)으로 지칭할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적어도 와트 타일러의 난(Rebels led by Wat Tyler, 1381), 세르비아 봉기(Serb rebels, 1804), 벨기에 봉기(Belgian rebels, 1830), 헤르체고비나 봉기(Herzegovinian rebellion, 1875)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에 결들인 라쉬단(Raschdan)의 보고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정확히 반란(Rebellion)으로 지칭되었다.

다음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은 1894년 4월 25일 동학농민군이 기포하

면서 내건 「무장포고문」의 독일어 번역문 전문이 보고된 점이다. 크리엔은 반란군의 성명서(Proklamation der Aufständischen) 사본을 번역하여 제출하면서 “반란군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오만한 관리들의 폭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무기를 들었을 뿐, 그들은 왕의 충실한 신하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roklamation”라고 하였으니 말 그대로 “포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크리엔은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나름의 정부(Regierung)를 수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김개남의 전라도 남원에서 開南王 자칭이 포착된 점이다. 여기서 開南王은 김개남 자신의 이름에 王을 덧붙인 것이다. 크리엔이 파악한대로 개남의 개남이 “개척된 남부지방(dem erschlossenen Süden)”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남왕을 자칭한 김개남을 두고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önig)”으로 지칭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일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인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주도 하에 갑오개혁(Reformen)이 진행되고 조선이 명목상의 독립(Unabhängigkeit)을 얻은 정황을 일본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눈에도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반란군 지도자, 즉 전봉준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인식되기도 하였다. 물론 전봉준이 일본을 대상으로 봉기한 점에서 처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독일제국 당국은 동학농민혁명을 서구 세계에서 혁명 전 단계의 “반란(Rebellion)”으로 파악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을 “탐관오리(habgierigen und verrotteten, 탐욕 및 부패)”로 정확히 파악하였다. 「東學黨與完伯書」 및 「무장포고문」의 독일어 번역문 전문이 실린 것은 주목할만 하다. 김개남이 “개척된 남부지방(dem erschlossenen

Süden)”의 “대립왕(GegenKönig)”이 된 사실도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는 저 멀리 독일 제국의 수도 베를린에까지 전해진 점을 알려두고자 한다.

투고일 : 2024. 9. 28.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보고서.
_____,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02~2010, 『프랑스외무부문서』 1~9.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史芸研究所
_____,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史芸研究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8,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_____,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李離和 解題, 1985,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驪江出版社.
이시순 외 역, 2018, 『근대 한불 외교자료』 1~3, 선인.

<단행본>

- 김용구, 2012,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영관, 2002, 『조선과 독일』, 국학자료원.
Gerd Schwerhoff, 2024, *Auf dem Weg zum Bauernkrieg: Unruhen und Revolten am Beginn des 16. Jahrhunderts*(Konflikte und Kultur-Historische Perspektiven), UVK, Tübingen.

<논문>

- 김장수, 2016, 「룩셈부르크(Lucemburská) 가의 카렐 4세(Karel IV)-왕권강화를 위한 제 방안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38, 한국세계문화사학회, 1~26쪽.
김태웅, 2011, 「조선말·대한제국기 뮌헨 주교의 政局 認識과 對政治圈 活動」, 『教會史研究』 37, 한국교회사연구소, 95~123쪽.
배항섭, 2002, 「1893년 동학교도와大院君의 擧兵 企圖」, 『한국사학보』 12, 고려사학회, 97~133쪽.
이선희, 2022, 「독일의 삼국간섭 참여와 자오저우만(膠州灣) 조차(租借)-독일의 제국주의적 야망-」, 『역사와 세계』 62, 효원사학회, 175~206쪽.
정상수, 1996, 「빌헬름시대 독일의 세계정책 (Weltpolitik) 1895/97 - 1901/07」, 『西洋史論』 51, 한국서양사학회, 69~102쪽.
_____, 2023, 「개항 이후 독일 관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적 상황 1884/86년」, 『西江人文論叢』 6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1~284쪽.

<Abstract>

German Diplomat's Perception for the Donghak Peasant Army

Yoo Bada*

The German Empire were also aware of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oples' Movement in April 1893. At this time, Krien, Consul General of Germany in Korea, translated "Donghak" into "Tonghak" in phonetic value, "ostliche lehre" in meaning.

While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rose up in Mujang, Jeolla Province on Apr. 25, 1894, defeated the Jeolla Province Army in Hwangtohyeon on May 11, Krien reported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caused "Unruhen" or "Tonghak-Unruhen". In Germany, "Unruhen" is a concept considered to be a preliminary stage of the German Peasant War in the 16th century.

In October 1894, the Donghak Peasant Army secondarily rose up. Krien found that Kim Gae Nam self-proclaimed "Furst von Kainam" in Namwon, Jeolla Province. At this time, King Gae Nam Kim was also expressed as "Gegen Konig".

The seco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failed. "Chong Pung Shun" was also arrested in Sunchang Pirori on Dec. 28, 1894 and sent to Seoul. According to Krien's repor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nfident and dignified attitude of the rebel leader, Jeon Bong Jun, who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vile attitude of the bureaucrac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and this reached Berlin, the capital of the German Empire.

Key word : German Empire, Ostliche Lehre, Unruhen, Furst von Kainam,
Chong Pung Shun

